



코로나 이후의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기록적인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 빠르게 성장했던 일본경제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 원인을 급격한 생산성 하락과 같은 총공급 요인에서 찾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필두로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일본경제처럼 유효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으로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질 우려가 커지면서 총수요 요인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총공급과 총수요 양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본경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이차원의 금융완화정책,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전략정책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가 2013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아베노믹스로 기업 수익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상승했으며, 그 결과로 설비투자과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여 일본경제는 많이 호전되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좋은 경제흐름을 이어가며 2019년 새 천황의 즉위, 2020년 올림픽 개최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일본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팬데믹이 일어나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일본정부의 당초 계획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극단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융완화정책 등의 아베노믹스로 겨우 살려낸 경제가 다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 충격은 소비와 수출의 감소로 인한 총수요 측면과 기업의 도산, 휴업 그리고 고용의 감소로 인한 총공급 측면에도 아주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총수요 측면을 보면, 2020년 4월 7일에 발표된 긴급사태 선언 이전인 2020년

1사분기(1월에서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4사분기에 비해 2.2% 하락했는데, 주로 소비와 수출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실질소비는 0.8%, 수출은 6%(121억달러)나 줄었다. 이와 같은 하락폭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에 비교해도 아주 크다. 총공급 측면에서도 민간조사기관인 동경상공리서치의 2020년 2월과 3월의 기업도산 데이터와 구글이 공표한 사람들의 이동 데이터를 이용한 히토쓰바시대학 경영관리연구과 미야카와(宮川)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사람들의 이동이 감소한 지역에서 기업의 도산 확률이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6월 30일에 5월의 구직자 한 사람에 대해서 구인이 몇 건인가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이 4월에 비해 0.12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의 하락폭은 1차 석유위기가 있었던 1974년 이후 46년 만이라고 한다. 총무성도 5월의 완전실업자가 198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3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6월까지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팬데믹이 수습되어도 일본의 연간 GDP가 5%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 예측이 맞으면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실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경제가 안고 있었던 총공급과 총수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도중인 현재, 코로나 쇼크는 총공급과 총수요 양쪽 모두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서 성장해 왔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이 일어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재난에 대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의 토도(堂)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본재난의 지진과 해일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생산감소보다 공급사슬의 단절로 생긴 생산감소가 100배 정도 높았다고 한다. 만약 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이 생긴다면 일본과 세계경제는 예상 이상의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매우 우울한 예상이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03년에 일어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중국이 많이 힘든 위기 상황이었지만,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Big tech)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이 사스가 맹위를 떨치는 시기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라 불리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기업군이 사스가 만연할 때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디지털 기술과 국제화에 많이 뒤처져 스스로도 갈라파고스화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번의 코로나 쇼크는 현금중시경향, 인감문화, 사람들 간의 조정을 우선하는 네마와시 등과 같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문화에 타격을 주어서, 그동안 정체되었던 여러 부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분야에서 핀테크, 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 생산활동에서 자동화, 소비에서 전자 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분위기이다. 코로나가 일본에서 창조적 파괴자의 역할을 한다면, 아이러니하게 일본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권혁욱
일본대학 경제학부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